

다산포럼

사면은 없어야 한다



강명관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

다산 정약용은 '원사(原敍)란 제목의 글을 남겼다. '원사(原敍)는 '용서란 무엇인가를 따진다'는 뜻이니 요즘으로 치면 '사면(赦免)이란 무엇인가'란 의미이다. 다산은 서두에서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의 신하 오한(吳漢)이 죽기 직전 광무제에게 올린 '신무사'(愼無敍)라는 세 글자를 문체 삼는다. 사람들은 이제 글자를 옳은 말로 여기지만, 자신은 어질지 못하고 슬기롭지 않은 말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신무사'는 '삼가 용서하지 말라'는 뜻이니 다산의 비판은 그럴 만도 하다.

그렇지 않은가. 형벌은 죄에 대한 처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것은 개과천선(改過遷善)의 계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때의 실수로 죄를 저질렀다면, 재판의 오류로 인해 억울하게 형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 또 갇히 누우치고 있다면, 사면의 기회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명나라 황제가 칙서를 보냈다고 사면령을 내렸던 것이다. 이 외에도 갖가지 핑계거리를 찾아 그때마다 사면령을 내렸다.

나라의 경사 운운하면서 사면령을 남발하기에 그 결과 사람들은 도무지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면의 요행을 노려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까지 생긴다. 이런 이유로 다산은 '나라의 경사'라고 일컫고 사령을 내리는 법을 영원히 없애 버리자고 말한다. 다산은 앞서 자신이 비판한 오한의 말을 따르고 있는 셈이다.

다산은 구체적으로 도형(徒刑)을 1년부터 9년까지 9등급으로 나누고, 날짜를 철저히 헤아려 356일을 완전히 채워야 1년으로 인정해, 복역 기간을 채우지 않고는 절대 방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자고 제안한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사면의 요행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또 사람들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풀려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다산은 사면령을 없애는 대신 형기(刑期)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도리어 수형자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얼마 전 전두환 씨가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였다. 한마디 사과하는 말이라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그가 내뱉은 말은 '이거 왜 이래!'였다. 주지하다시피 그는 1997년 반란 수괴 등의 죄로 무기징역의 판결을 받았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김영삼 정부의 사면으로 풀려났다. 반성의 마음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이거 왜 이래!'라는 말은 다름 아닌 그 사면의 결과물이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다산의 말이 옳음을 절감했다. 권력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이 없어야 한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두 사람에게 대해서도 벌써 사면 운운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정말 웃기는 이야기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뉘우치지도, 사과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사면은 무슨 사면이란 말이냐! 거듭 말하지만 다산의 말은 지금 들어도 백번 옳다.

청춘 특·특

'태움 문화' 단순히 괴롭힘의 문제일까



이현정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3학년

지난 1월 5일 고(故) 서지훈 간호사가 '태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2개월 여의 시간이 흘렀다. 서 간호사는 지난해 말 간호 행정부서로 옮긴 뒤 한달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서울시는 사망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조에 따르면 서씨가 부서를 옮긴 뒤 해당 부서 내부 분위기와 부서원들이 주는 정신적 압박에 고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태움'이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라는 속담을 가진 은어이다. 원래는 의료 업무의 특성상 실수 없이 일하도

록 엄격히 가르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태움은 교육을 빙자한 폭력이 됐다.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을 돌보는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인연 침해는 더욱 서비세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더 큰 문제다.

이러한 '태움'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한간호협회 조사에 따르면 간호사의 40.9%가 태움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태움'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한다. 특히 인력 부족에서 비롯된 간호사의 과중한 업무를 대표적으로 꼽았다. 지난해 '태움'을 알리고 세상을 떠난 간호사 고(故) 박선옥 씨의 죽음은 산업 재해로 인정받은 것도 병원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각 간호사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서울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긴박한 업무 수행이 고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간

호사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로 직장 내에서 적절한 교육 체계 개편이나 지원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고인이 일상적인 업무 내용을 초과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했다"며 "고인의 정신적인 역제력이 저하돼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타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 내 간호사 배치 기준은 간호사 1명당 환자 약 12명이며 미국은 5.3명, 영국은 8.6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력 부족은 초과 근무와 높은 노동 강도, 불충분한 식사 시간 등 살인적인 근무 스케줄은 물론 위계적인 업무 시스템으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로 연결되기 마련이다.

의료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의료 기관 내 간호사를 충분히 배치해야 태움과 같은 인권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꾸준히 지적해왔다. 의료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

해서라도 우선 태움의 근본 원인인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태움은 단순히 괴롭힘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간호사들이 죽어 나갈 수밖에 없는 병원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에 시급히 착수해야 한다. 국회엔 '보건 의료 인력 지원법', '의료인 인권 침해 금지법' 등이 발의돼 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고 한다.

지금도 '태움'을 당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나오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법의 테두리에서 이들을 지켜줘야 한다. 또한 병원 내에서 간호사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소외당하거나 차별당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멘토-멘티 구조를 만들어 줘야 하며, 주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해 '태움'이 근절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병원은 사적을 만들어 휴식 시간을 정하고 휴식 공간도 설치해 간호사의 휴식을 확실히 보장해 줘야 한다.

기고

혁신은 청춘이다



변길현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

혁신이란 청춘과도 같다. 청춘은 숫자가 아니라 젊은 마음이다. 젊은 마음은 상상만 해도 즐겁다. 비록 언젠가는 현장을 떠나고 잊혀진다 하더라도, 젊은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이다. 혁신을 무섭거나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혁신은 업데이트고 리메이크이다.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이 아니고, 기존의 시스템을 더 효과적으로 정비하는 일이다. 우리의 기존 환경을 더 살기 좋게,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게끔 창의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혁신이다. 혁신의 반대말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다. 기존의 관행에 빠져 변화에 발 맞추지 못하는 것이다.

계절의 변화로 생각하면 된다. 계절이 바뀌면 나무의 살림살이가 바뀌어야 한다. 나무에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다. 만약 가을에도 낙엽을 떨구지 않고, 봄에 새 잎과 새 꽃을 피우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딸깍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국가의 운명도 마찬가지이다. 19세기에

개방이라는 역사의 흐름을 선도한 일본과 쇠국주의를 선택한 조선의 운명은 180도로 달라져 조선은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문화대혁명 이후 엄청난 정치경제적 타격을 받은 중국은 1978년 시장 경제 도입을 결정하였고, 1979년 광둥성의 선전 등을 개방하여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받아들였다. 그 결과 중국은 불과 1세기도 되지 않아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군림하고 있다. 베트남 전쟁이라는 엄청난 전란을 겪은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새롭게 변화다)라는 말로 상징되는 개혁 개방 정책으로 일당 지배 정체를 유지하면서도 대단한 경제 발전을 이루어왔다. 둘 다 불과 50년도 안된 일이다.

변환 산업 혁명과 현대 과학의 태생지인 영국은 어떠한가? 물론 아직도 영국은 세계적인 정치 경제 문화의 강대국이다. 그러나 2017년 기준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영국이 꺾박했던 아일랜드가 7억, 영국이 22위이다. 오늘날 영국은 유럽 연합에서 탈퇴한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고집만 남은 늙은 국가, 영어와 문화 예술 유산으로 먹고 사는 폐쇄적 국가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영국은 1840년 아편전쟁을 일으켜 늙은 국가 중국을 침탈하였고 승전의 대가로 홍콩을 할양받았다. 시간이 흘러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은 변화와 혁신을 일으킨 중국과 대영

제국의 향수에 빠져 혁신을 거부했던 영국의 명암이 불과 1세기만에 교차하는 것을 보여준 세계적 사건이었다.

미술사조의 흐름은 혁신 그대로이다. 전통을 계승하되 새로움을 창조하는 것이 미술사의 핵심이다. 이 변화를 거부하면 도태되거나 잊혀졌다. 서양미술사에 한정해서 말하자면,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서 변장했던 미술이 그리스와 로마의 황금시대로 이어졌고, 중세시대의 종교미술 암흑기를 거쳐 르네상스 시기를 맞아 고전의 부활로 이어졌다. 르네상스란 말 자체가 학문 또는 예술의 재생, 부활이라는 뜻이다. 오늘날로 치면 혁신적 문화운동이었던 르네상스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고전을 부활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술사조가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 미술사조를 다 외울 필요는 없다. 다만 기억할 것은 과거에 대한 계승과 반동을 통해 새로운 미술 양식이 탄생했고 또 다른 계승과 반동을 통해 또 다시 새로운 미술 양식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과거에 안주한다는 것은 예술의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인 새로움이 없다는 것이라 변화된 인간사와 사회상을 반영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고객들의 기호를 충족시킬 수 없었기에 변화하고 혁신한 예술가들이 오늘날 미술사에 그 이름을 남기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현재 전국 광역 시

립미술관 중 수치상으로는 최고의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 최고 최다를 기록하는 것이 많다. 본관 이외에 운영해야 할 분관, 전시관, 센터, 갤러리 등이 8개에 달하고, 학예연구사 1인당 전시 횟수, 소장품수, 교육 수강생수,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여자가 수 모두 전국 광역 시립미술관 중 최고 최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과에만 안주한다면 지난 역사가 보여주듯이 미술관의 생존 자체를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미술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지금까지 갖추지 못한 선진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질적 성장의 과제가 남아 있다. 이러한 혁신을 이루기 위해 '미술관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누구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원적 질문부터 시작해야 한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전 구성원이 참여하여 전시, 교육, 수집, 연구, 관람객 서비스 등 미술관의 모든 역할에 대해서 선진적 시스템을 정립하고 매력적인 미술관을 만들기 위한 혁신 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다. 지금 중의공원에는 목련이 한창이다. 목련이 지고 나면 벚꽃이 필 것이고, 이어서 신록이 올라올 것이다. 신록이 짙어질 즈음 젊음이 가득한 미술관을 꿈꾸는 일, 우리 자신과 우리의 후손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것,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아니한가!

社說

올해도 공급 과잉 쌀값 하락 우려된다

올해도 공급 과잉으로 인한 쌀값 하락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의 쌀 관측 동향 자료에 의하면 지난 15일 80kg당 19만3000원을 기록했던 산지 쌀 가격은 4월부터 가격 하락 폭이 커지면서 5월에 이르러 19만 원 이하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이른 추석으로 산·곡교체 시기가 예년보다 빠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고 부담이 큰 업체들을 중심으로 저가 출하가 예상된다. 실제로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가 지난달 산지 유동 업체를 대상으로 향후 가격 인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인하 논의가 있었던 업체의 31%가 저가 출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여기에 농가 역시 파종 준비와 원료곡의 부패 변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당량의 재고분을 시장에 출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쌀값 하락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산곡 예상 공급량은 322만6000t

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에 그치는 반면, 산곡 예상 수요량은 302만3000~307만3000t으로 15만~20만t의 초과 공급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쌀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농가에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쌀 생산 조정제)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쌀 생산 조정제는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논에 벼 대신 콩·조식료 등 다른 작물을 심는 것이다. 2016년산 쌀값이 목표 가격에 미달해 지급한 변동직불금은 1조4900억 원이나 됐는데, 만일 쌀값이 목표 가격보다 높게 형성됐더라면 막대한 예산이 절감돼 다른 현안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었을 것이다.

쌀 생산 조정제는 이처럼 쌀값 안정과 변동직불금 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그럼에도 참여 농가는 많지 않다. 쌀값의 지속적인 안정과 수급 균형을 위해 농가의 생산 조정제 적극 동참이 절실하다.

재활용 쓰레기 처리 근본 대책 마련을

광주 지역 재활용 쓰레기 처리를 놓고 수거 업체와 구청 및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재활용 쓰레기 처리 공장의 가동을 주민들이 막아 가동이 중단되는 가 하면 분리 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함께 매립하거나 수거를 거부한 업체도 있다. 이로 인해 자칫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광주 남구는 올해 재활용 쓰레기 수거·처리 민간 위탁 수탁자로 광산구 임곡동의 A업체를 선정했지만 임곡동 주민들이 환경 오염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남구는 임시방편으로 나주의 한 업체와 처리 계약을 했지만 아마도 4월 말이면 종료될 예정이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런가 하면 동구는 최근 쓰레기 수거 위탁을 맡은 B업체가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구분하지 않고 매립하는 바람에 갈등을 겪었다. 동구의 행정 조치에 해당 업체는 일반·재활용 쓰레기가 뒤

섞인 쓰레기봉투를 수거하지 않아 민원이 빚발쳤다. 이에 동구는 선별장 인원과 수거 차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수거를 재개해야만 했다.

광주 지역 1일 재활용 쓰레기 수거량 75t 가운데 실제 재활용되는 건 45t에 불과하고 나머지 30t은 매립되고 있다고 한다. 재활용 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민들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분리 배출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쓰레기 올바른 버리기에 대한 행정 당국의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도 필요하다.

아울러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광주시를 중심으로 5개 자치구가 쓰레기 배출과 수거 그리고 운반, 처리, 재활용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에 나서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쓰레기 처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에 인프라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지난주 제주도 왕벚꽃 축제에 다녀왔다. 벚꽃은 봄날, 그 어느 꽃보다 아름답고 화려한 자태로 방문객들을 반겼다. 시인 최일정은 벚꽃을 애간장 녹이는 '양글한 사랑'으로 묘사했다. "햇살 한 줌에 / 아무진 꽃봉오리 / 기꺼이 터뜨리고 야 말! / 그런 사람이었다면 / 그간 애간장은 / 왜, 그리 녹였던 게요(중략) / 한줄기 바람에 / 미련 없이 떨구어 널 / 그 야멸찬 사랑이라면 / 애당초 시작이나 말지 / 어이하여 / 내 촉수를 몽땅 세워 놓고 / 속절없이 가버리는 게 / 이 양글한 사랑야"

**벚꽃**

이들 벚꽃으로 잘못 이해한 일부 정치인들이 '사쿠라꽃이 만발했느니' 하며 정치적 변질자를 비난하는 데 써 왔다. 또 벚꽃은 일본 국화(國花)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일본은 공식적으로 지정된 나라꽃이 없다. 물론 벚꽃은 일본 국민으로부터 가장 사랑 받는 꽃이긴 하다. 일본 황실(皇室) 가문을 상징하는 꽃은 국화(菊花)다. 이 때문에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자기 나라 국화(國花)를 벚꽃이나 국화(菊花)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서울취재본부 박지경 부장 jkpark@

<b>光 州 日 報</b>		<b>The Kwangju Ilbo</b>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煥</b>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자사 지역(국통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경 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64 전 납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여 론 채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FAX 02-773-9331)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b>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b>			